



단체장이
바라본 하천

River & Culture



박준영 | 전라남도지사

사철 물이 흐르는 자연 하천으로



하천은 모든 문명을 잉태하고 키워온 공간으로 인류는 하천을 중심으로 경제 부흥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문명과 역사가 녹아 있는 하천은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갔고 산업화시대에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미래는 생명의 물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 상태의 하천을 치수와 이수를 집중적으로 정비했지만, 70~8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후유증으로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구실을 잃기 시작한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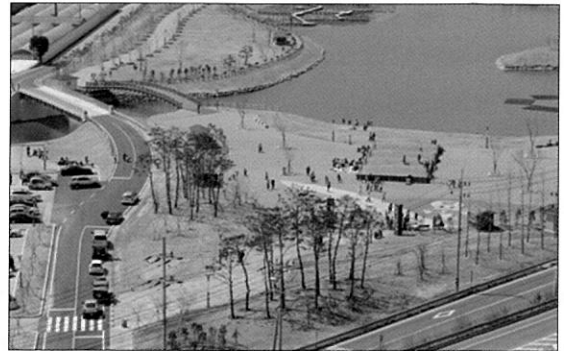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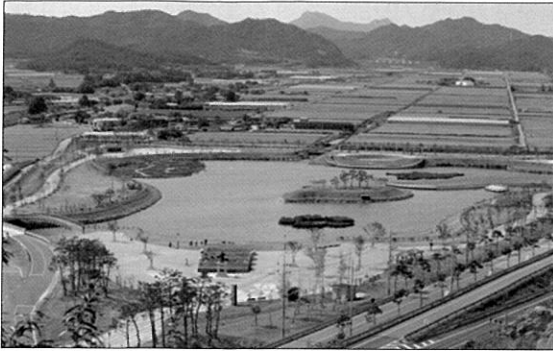
하지만 국민의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되면서 이제 하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커 홍수에 안전하고 수량이 풍부한 하천을 찾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사람과 다양한 생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에 지혜를 모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천공사를 추진하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편입된 자투리 토지와 폐천 부지를 활용하여 집중호우 시 급격히 늘어나는 하천수를 일시 저류하는 강진천변 저류지가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강진천변저류지는 하천 범람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관광객들의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은 하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 대목이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 지내 강진천변저류지(전경 - 우, 여가 활동 - 좌)

녹색의 땅 전남 건설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우리 전남은 바다에서 소금과 젓갈을 가득 실은 황포돛배가 내륙 깊숙한 영산포까지 거슬러 올라왔던 영산강과 감성의 강, 섬진강을 비롯한 국가하천 7개소와 지방하천 554개소 등 3,232km의 하천이 흐르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홍수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에 문화·휴식·레저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거듭해 왔다. 이는 분명 과거와 다른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생태재료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 물길정비

전남도가 도정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강 살리기 퇴적토 준설사업은 하천 내 퇴적된 토사와 잡목을 제거함으로써 하천의 통수단면과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의 물길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하천의 생태계는 하천에 흐르는 유량과 수질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질 확보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7월~9월 우기철에 집중돼 있어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우수소통 장애를 사전에 해소하는 노력에 집중해 왔다.

실제로 2006년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발생한 침수피해 주요 원인으로 퇴적토사와 잡목이 하천의 수위를 상승시키고 물길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래서 전남도는 원활한 우수소통과 하천 내 모든 생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지수량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도정 특주시책으로 추진한 퇴적토 준설은 하천으로서의 구실을 갖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감성이 흐르는 문화하천 조성



이제 하천은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용수를 공급하는 이수와 치수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투영한 지역 명소로 탈바꿈해 지역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하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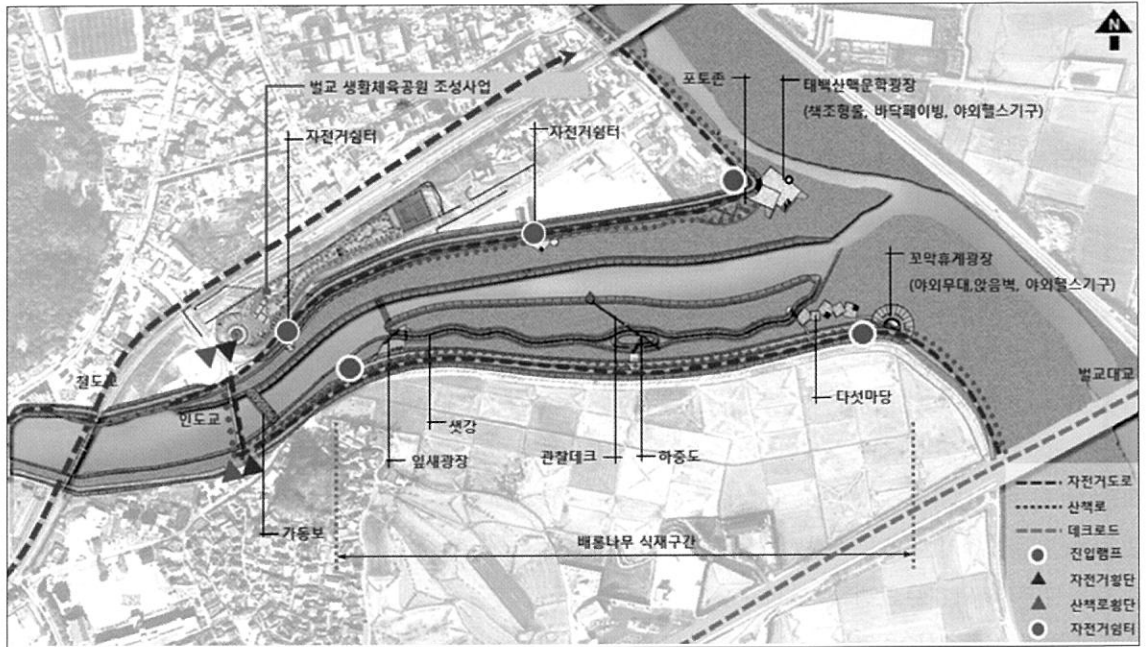
하천의 주요지점에 하폭과 유속을 고려한 경관 필요수량

을 확보하여 하천을 찾는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안정된 감성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경관관리 측면의 하천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전남도의 친환경 하천조성과 물길정비 사업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하천정비가 완료되면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로 시작하는 '어린 시절'이란 노래처럼 맑고 깨끗한 하천에서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토종 물고기와 아이들이 물장구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란 친환경, 감성이 함께 내재된 문화하천이 아닌가 싶다. 🌍



칠등천 조감도



오동천에 설치할 친수시설